

2026년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와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김도연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남유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차 례

1.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성과
2. 전략 분야 협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9~21일 인도를 국민 방문하여 2015년에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양국 경제·산업 협력 동력 창출에 집중함.
 - 최근 인도의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자 함.
 -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3건의 부속 문건, 15건의 양자협력문서를 채택함.
 - 인도 국민 방문 기간 중 한국 기업인들이 다양한 일정에 참여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건의 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됨.
- ▶ 2026년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 기간에 양국은 △ 조선, △ 금융, △ 인공지능, △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함.
 - [조선] 조선업 등 해양경제가 주요 협력 분야로 특정되었고, 양국은 '조선·해운·해양물류 분야 포괄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인공지능]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인공지능 협력 방향성을 포함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금융] '금융 중심지 활성화 양해각서', 'QR코드 결제 연동 양해각서' 등을 통해 양국 금융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 [방산] 2020년에 체결된 '방산협력 로드맵 양해각서'를 재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인도 방산혁신가속플랫폼(KIND-X)'을 출범하기로 함.
- ▶ 국민 방문 기간에 논의된 전략 부문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야 함.
 - [추진 계획]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 부문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협력 대상] 전략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도 국영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정책 수단] 조선업 등 양국의 협력 의지가 큰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및 정책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교적·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1.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성과

■ 인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생산기지 및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현재 세계 5위 경제이며 1~2년 내 일본, 3~4년 내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로 등극할 전망이다.
- 2020년대 초부터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 재조정, 인도정부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 및 사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인도가 주요한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음.
 - 2020년대 초 애플 아이폰이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가운데, 2025년 인도 내 아이폰 조립 대수가 5,500만 대 또는 전 세계 아이폰 조립 대수의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¹⁾
- 풍부한 연구 인력과 정부의 산업·과학 정책에 힘입어 인도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
 - 인도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가 2015년 81위에서 2020년 48위, 2025년 38위로 상승함.²⁾
 - 2025년 기준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선정한 74개 핵심기술 중 50개 기술에서 인도가 5대 국가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표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함.³⁾

■ 2020년대 초부터 주요국은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국은 인도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인도와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표 1 참고),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구축을 원활화하기 위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2021년 이후 인도와 8개 경제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됨.⁴⁾

표 1. 주요국의 대인도 협력 전략

발표 국가	발표 시점	협력 전략
영국	2021년	2030 Roadmap for India-UK Future Relations
인-프랑스	2023년	Horizon 2047
독일	2024년	Focus on India
호주	2025년	A New Roadmap for Australia's Economic Engagement with India
인-미국	2025년	Catalyzing Opportunities for Military Partnership, Accelerated Commerce & Technology (COMPACT)
인-일본	2025년	Japan-India Joint Vision for the Next Decade
인-EU	2025년	Joint European Union-India Comprehensive Strategic Agenda

자료: 김경훈(2026), 「인도-선진국 경제협력 기초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6-04.

1) Bloomberg(2026), "Apple now makes about 25% of iPhones in India after China Pivot."

2)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15),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5";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20),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IPO(2024), "Global Innovation Index 2025."

3) ASPI(2025),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5 updates and 10 new technologies."

4) 모리셔스, UAE, 호주, EFTA, 영국, 오만, 뉴질랜드, EU.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6), "India's achievements in Free Trade Agreements for the year 2025-26."

■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대 말에 이어 ‘제2의 인도 투자붐’이 목격되고 있음.

- 2020년대 초부터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 및 신규법인 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한국의 대표 제조업체들이 인도를 핵심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을 확대 중임(표 2 참고).
 - 2024년 현대자동차는 최대 해외생산거점인 인도에서 76만 7천 대를 생산하였고,⁵⁾ 2025년 제3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99만 4천 대로 늘어난 연간 생산능력을 2028년 107만 4천 대로 확대할 계획임.
 - LG전자는 연간 생산능력 △ 냉장고 80만 대, △ 세탁기 85만 대, △ 에어컨 150만 대, △ 에어컨 컴프레서 200만 대 수준의 세 번째 가전 공장을 2025년부터 인도에서 건설 중임.
-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금융] 미래에셋그룹은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이며, 2024년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Sharekhan)을 인수하면서 현지 활성 고객 기준 9위권 증권사로 등극함.⁶⁾
 - [게임] 크래프톤은 2025년 3분기 기준 2억 5천만 명의 베틀그라운드모바일인디아 누적 사용자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11월까지 총 3,000억 원을 스타트업 등 인도 테크 분야에 투자함.⁷⁾
 - [엔터테인먼트] 2025년 하이브는 인도에 다섯 번째 해외본부를 설립하였으며,⁸⁾ CJ ENM은 인도의 OTT 플랫폼 아마존 MX 플레이어(Amazon MX Player)에 K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함.⁹⁾

그림 1.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신규법인 수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표 2. 주요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

기업명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
기아자동차	자동차 43만 1천 대
삼성전자	휴대전화 1억 2천만 대
현대자동차	자동차 99만 4천 대
효성티앤씨	섬유 1만 9천 톤
HD건설기계	건설기계 6,000대
LG전자	냉장고 280만 대, 세탁기 290만 대, 에어컨 320만 대, TV 200만 대

주: 삼성전자는 인도에 가전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능력 자료 확인이 어려움. 효성티앤씨는 2023년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이전 생산능력임.

자료: 효성그룹(2024), 「효성그룹, 인도 시장에서 ‘백년기업’을 꿈꾼다」; HD 건설기계(2026), 「사업보고서」; Hyundai(2025), 「Hyundai Motor Group’s sincere approach touches the hearts of 1.4 billion Indians」; LG전자(2025), 「‘印 국민 브랜드 비전 향해 삼 뿔다’ LG전자, 인도 스리시티에 3번째 가전공장 착공」; Samsung(2018), “Samsung inaugurates world’s largest mobile factory in India; Honourable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flags-off ‘Make for the World’.”

5) 2024년 기준 2위 해외생산거점인 미국 내 생산 대수(36만 1천 대)의 2배 이상 규모임. 현대자동차(2025),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6) 미래에셋그룹(2025), 「2025 미래에셋그룹 소개자료」.

7) Krafton(2025), “FY2025 3Q Earnings Results.”

8) India Today(2025), “India is a powerful melting pot, global majors are watching: HYBE Chairman Bang Si-Hyuk.”

9) CJ ENM(2025), “CJ ENM Expands Global Reach With Amazon MX Player Deal in India.”

- 한국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국가인 인도와 최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표 3 참고), 2026년 4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긴 공백 기간 이후 진행된 양국 간 정식 최고위급 행사임.
-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추진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와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추진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는 각각 글로벌 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와 외교지평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¹⁰⁾
- 2026년 4월 한국-인도 정식 정상회담은 2018년 7월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2019년 2월 인도 총리의 한국 국빈 방문에 이어 7년 이상의 공백 기간 이후 진행되었음(표 4 참고).¹¹⁾

표 3. 최근 한국-인도정부 고위급 교류

시기	장소	성격
2025. 6. 18.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한-인도 정상회담(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25. 7. 17.~18.	인도 뉴델리	대통령 인도 특사단-인도 총리·하원의장·외교장관·외무부 아태차관 예방 및 면담
2025. 8. 16.	인도 뉴델리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2025. 10. 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5. 11. 13.~14.	대한민국 서울, 울산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한국 조선사 방문
2025. 11. 24.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인도 정상 회동(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26. 2. 13.	대한민국 서울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2026. 2. 18.~20.	인도 뉴델리	한국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 참석
2026. 3. 13.	인도 뉴델리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 장관 회담
2026. 3. 20.	인도 뉴델리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2026. 3. 26.	프랑스 이블린 지역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6. 4. 7.	대한민국 서울	제3차 한-인도 영사협의회
2026. 4. 7.	인도 뉴델리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외교 행보 본격화」; 대통령실(2025), 「이 대통령, 인도 모디·브라질 룰라와 정상 회동…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부(2026),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 논의」; 외교부(2026), 「국립외교원,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개최」; 외교부(2025),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 결과」; 외교부(2026), 「박윤주 외교부 1차관,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개최」; 외교부(2025),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정상회담」; 외교부(2026), 「제3차 한-인도 영사협의회 개최」; 외교부(2026),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개최」; 외교부(2025),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8.16.) 결과」; 외교부(2025),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10.26.) 결과」; 외교부(2026),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5), "Shri Hardeep Singh Puri Holds Key Shipbuilding Meetings to Boost India's Maritime Vision."

표 4.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인, 인도 총리의 방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방인	국빈 방문				국빈 방문				국빈 방문					국제 회의			국빈 방문
방한	국제 회의		국제 회의			국빈 방문				국빈 방문							

10)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11) 2023년 9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여 약식 정상회담을 가짐. 이어 2025년 6월(캐나다), 2025년 11월(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 및 정상 회동을 함.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9~21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2015년에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양국 경제·산업 협력 동력 창출에 집중함.

- (4월 19일) 뉴델리 도착 → 인도 외무장관 접견 → 동포 간담회 → (20일) 공식 환영식 → 간디 추모공원 헌화 → 정상회담 → MOU 교환식 → 공동언론 발표 → 인도 총리 주최 오찬(양국 대표 기업인 초청) → 비즈니스 포럼 → (21일) 출국 등의 일정이 진행됨.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잠재력에 비해 저조하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동포 간담회)고 밝히고 인도를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공동언론 발표)로 평가함.

- 양국 정부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다층적인 정상회담 성과를 도출함.

○ 52개 항으로 구성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는 △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기반 강화, △ 전략적 신뢰 강화를 통한 이해의 심화, △ 산업의 역동성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 △ 무역, 금융 및 개발 중심의 파트너십 촉진, △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지구를 위한 연대, △ 소프트 파워의 증폭, △ 인적 관계,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파트너십 등의 주요 협력 분야 및 방향성을 제시함.

○ △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 ‘에너지 자원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등 3건의 부속 문건을 채택함.

○ 산업·과학·기술(8건), 문화·체육·인적교류(5건), 기후·환경(2건) 분야에서 양해각서 등 총 15건의 양자협력문서를 체결함(표 5 참고).

○ △ 경제안보대화 출범, △ 고위 방문자 프로그램 설립, △ 기후변화, 북극, 해양협력 등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한 양국 외교부 간 대화 출범, △ 한국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Indo-Pacific Oceans Initiative) 가입, △ 한국의 국제태양광동맹(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가입 및 인도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itiative) 가입, △ 2028~29년 한-인도 우호의 해 지정 등의 협의 사항이 발표됨.

- 인도 국빈 방문 기간 중 한국 기업인들이 다양한 일정에 참여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국빈 방문에 54개 한국 기업 및 단체의 책임자 200여 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함.

○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 진출에 대한 한국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고, 인도정부에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기업 주간’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공유함.

○ 인도 모디 총리가 국빈 오찬에 이례적으로 양국 대표 기업인을 초청하였고, 양국 정상은 기업 간 협력 성과를 격려하고 추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공유함.

○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 HD한국조선해양, △ 현대자동차, △ 포스코홀딩스, △ GS건설, △ 네이버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총 2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본고에서는 2026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 조선, △ 금융, △ 인공지능, △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¹²⁾

12) 본고는 △ 양국 정부의 연설문, 브리핑, 보도자료, 공식 문서, △ 이재명 대통령의 현지 인터뷰, △ 기업 보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표 5. 한국-인도 2026년 4월 정상회담 양자협력문서

분류	양자협력문서	한국 측 담당	인도 측 담당
산업· 과학· 기술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India-Korea Digital Bridge)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	주한인도대사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MOU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산업통상부 장관	상공부 장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철강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Trade for Steel Supply Chain)	산업통상부 장관	철강부 장관
	항만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orts)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금융 중심지 활성화 양해각서 (MOU between IFSCA and FSS/FSC in relation to Mutual Cooperation)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제금융서비스센 터 통합감독기구 위원장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	과학기술청장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n Resuming the Negotiations to upgrade the CEPA between India and ROK)	통상교섭본부장	상공부 장관
문화· 체육· 인적 교류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보방송부 장관
	문화교류계획서 (Cultural Exchange Programme between India and ROK for the Years 2026-2030)	주인도대사	문화부 차관
	체육 협력 양해각서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orts)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소년체육부 장관
	해양문화유산 협력 양해각서 (MOU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Heritage)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QR코드 결제 연동 양해각서 (MOU between NPCIL and KFTC)	금융결제원장	인도국가결제원장
기후· 환경	기후·환경 협력 양해각서 (MOU 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limate and the Environment)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환경산림기후변화 부 장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협력각서 (MOU on the Cooperative Approach under Article 6.2 of the Paris Agreement)	산업통상부 장관	환경산림기후변화 부 장관

주: 본문에서 언급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3건의 부속 문서는 제외함. 작성자 자체 분류임.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 분야 협력

가. 조선

■ [배경] 인도가 조선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며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 옴.

- 인도는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2020~24년 18위에서 2030년 10위, 2047년 5위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¹³⁾ 2025년 해양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 패키지 및 대규모 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6,972.5억 루피(약 75억 달러)를 △ 선박 생산 금융 보조금 제도, △ 해양경제 개발 펀드, △ 조선소 클러스터 설립 등에 투입할 계획임.¹⁴⁾
 - 인도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선박 437척(총 2.2조 루피, 약 240억 달러)을 발주하는 계획을 발표함.¹⁵⁾
- 인도 조선업을 관할하는 항만해운수로부 차관이 2024년 11~12월, 주요 선박 발주처인 국영에너지 기업을 관할하는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이 2025년 11월, 타밀나두주 산업부 장관이 2026년 1월 한국 조선사를 방문하여 인도 투자 검토를 요청함.

■ [협력 현황] 한국 조선사들은 인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인도 진출 방안을, 우리 공여기관은 해양경제 부문에서의 전략적 개발협력 방안을 검토해 옴.

- 2025년 7월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국영 CSL(Cochin Shipyard Limited)과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2025년 11월 HD현대중공업은 CSL과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2025년 12월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삼호는 인도 국영 BEML(Bharat Earth Movers Limited)과 '크레인 사업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 투자청 가이드스(Guidance)와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지 조선소 투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¹⁶⁾
- 202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인도 조선해양 분야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형성·예비·심층 조사를 진행하였으며,¹⁷⁾ 2026년 인도 항만해운수로부와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체결함.¹⁸⁾

13)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2021),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14) Press Information Bureau(2025), "Setting sail India's shipbuilding revival."

15) Press Information Bureau(2025),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launches transformative initiatives for Shipping and Shipbuilding sector worth over ₹2.2 lakh crore Watch."

16) HD현대(2025), 「HD현대, 인도에 '한국 조선 DNA' 심는다」; HD현대(2025), 「HD현대중공업, 인도 합정 시장 진출한다」; HD현대(2025), 「HD현대 인도 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MOU 체결」; BEML(2025), "BEML, KSOE and HSHI Forge Strategic Partnership to Build Next-Generation Maritime & Port Crane Ecosystem in India."

17) 3,00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 사업으로 2026년과 2030년 사이에 추진할 계획임(가안). KOICA(2026), 「인도 조선해양분야 인력양성사업 심층조사 전문가 공고」.

18)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2026), "MoPSW signs Implementation Plan with KOICA to boost skill development in India's shipbuilding sector."

■ [회담 기간 성과] 다양한 해양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향성이 도출되었고 주요 이해관계자 및 사업이 특정됨.

- 공동 전략 비전 문서에 조선업 등 해양경제가 주요 협력 분야로 포함되었고(14번 항),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조선·해운·해양물류 분야 포괄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부속 문서가 채택됨.
 - 양국 정부는 최근 한국과 인도 기업·기관의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관련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 및 지지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 KOICA가 기획 중인 개발협력 사업을 언급하며 양국은 인도의 조선 분야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조선업과 더불어 △ 인도 내 선박 등록, △ 해기사 고용, △ 항만 개발, △ 크레인 설계 및 제조, △ 해양 연구, △ 해양 문화 등 다양한 해양경제 협력 분야가 제시되었고, 항만 개발 부문과 관련한 별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됨.
- HD현대는 국영기업·기관인 SMFCL(Sagarmala Finance Corporation Limited) 및 NSHIP TN과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도 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현지 △ 산학협력 기반 마련, △ 인력 양성, △ 공급망 구축에 관한 계획도 밝힘.
 - HD현대의 인도 진출을 통해 △ 신규 물량 확보, △ 글로벌 가치사슬 다변화, △ 경쟁력 있는 인력 고용, △ 국내 기자재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나. 인공지능

■ [배경] 인도는 IT 인력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AI 핵심 국가로 부상 중이며, 정부 주도의 ‘인도 AI 미션’을 통해 AI 생태계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음.

- 인도는 풍부한 IT 인력, 디지털 공공 인프라, 디지털 경제 고성장을 기반으로 AI 분야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2024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글로벌 AI 활동성 지수(Global AI Vibrancy Index)에서 인도는 AI 기술 침투율¹⁹⁾ 1위, GitHub AI 프로젝트 기여도 2위, 종합 3위를 차지함.²⁰⁾
- AI는 2035년까지 인도경제에 약 1조 7천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도의 AI 및 관련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²¹⁾
 - 2025년 기준 AI 및 기술 생태계에 600만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며, 인도 내 기업 중 87%가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 내 AI 도입이 활발한 주요 산업은 △ 제조 및 자동차, △ 소비재 및 유통, △ 은행·금융·보험, △ 헬스케어임.

19) AI 기술 침투율은 AI 기술이 특정 시장이나 산업 내에 얼마나 적용되고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20) Stanford HAI, “The Global AI Vibrancy Tool,” <https://hai.stanford.edu/research/the-global-ai-vibrancy-tool-2024>

21) PIB(2025), “Transforming India with AI.”

- 인도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MANAV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추진하고 있음.²²⁾
 - 2024년 인도정부는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모델 개발,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등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간 총 1,037억 루피(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도 AI 미션을 출범함.²³⁾
 - 인도 과학기술부는 헬스케어, 농업,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에서 공과대학교(IIT: 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와 협업해 AI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 for AI)를 운영하고 있음.²⁴⁾

■ [협력 현황] 한국기업은 인도에서 R&D 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인재를 활용한 AI 연구 및 산학협력을 진행 중임.

- 삼성전자의 인도 R&D 연구소는 핵심 AI 개발 거점이며 인도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 중임.
 - 삼성전자 벵갈루루 R&D 연구소는 통신 운영 방식 관련 최첨단 AI 프로그램을 개발중임.²⁵⁾
 - 삼성전자 노이다 R&D 연구소는 인도 언어 AI, 헬스테크(HealthTech), 생성형 AI(Generative AI) 분야의 R&D를 강화하기 위해 IIT 봄베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함.²⁶⁾

■ [회담 기간 성과] 양국은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향후 우리 기업의 인도 AI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공동 전략 비전 문서에서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24번 항), 정례 협의체 개최, 공동 R&D 추진, 민간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네이버는 인도 타타그룹의 계열사 TCS(Tata Consultancy Service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맞춤형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발표함.
 - 양사는 AI·클라우드·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AX(AI 전환)·DX(디지털 전환) 분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다. 금융

■ [배경] 인도정부 주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 중산층 확대, 핀테크 혁신과 함께 인도 금융 산업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2) MANAV는 도덕적 시스템(Moral and Ethical Systems), 책임 있는 거버넌스(Accountable Governance), 국가 데이터 주권(National Sovereignty), 포용적 AI(Accessible and Inclusive AI), 유효하고 합법적인 시스템(Valid and Legitimate)을 강조한 인간 중심의 AI 비전을 의미함.

23) 강반디(2026),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추진 현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6-06.

24) PIB(2024), “Shri Dharmendra Pradhan to announce 3 AI - Centres of Excellence on Healthcare, Agriculture and Sustainable Cities on 15th October, 2024.”

25) Samsung Newsroom India(2024), “Pioneering AI for Telecom: Inside Samsung R&D Institute Bangalore’s Game-Changing Innovations.”

26) Samsung Newsroom India(2025), “Samsung R&D Institute, Noida and IIT Madras Sign MoU to Drive Research on AI for Indian Languages, HealthTech and Generative AI.”

- 모디 정부는 계좌(Jan Dhan)-인증(Aadhaar)-모바일(Mobile)을 결합한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인 JAM Trinity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 핀테크 산업 성장, 가계 저축 금융 자산화의 기반을 마련함.
 - o 모든 가구에 최소 1개의 은행 계좌를 보급하는 정책(PMJDY)을 통해 은행 계좌 수가 2015년 3월 1억 4,720만 개에서 2026년 2월 5억 7,800만 개까지 증가하면서 저축, 송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함.²⁷⁾
 - o 인도정부가 구축한 통합 디지털 결제 제도 UPI(Unified Payment Interface)의 2026년 3월 거래 건수는 226억 건(하루 평균 약 7억 3천만 건)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임.²⁸⁾
- 인도 증권거래소인 NSE(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에 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2024년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주식시장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IPO 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이 2023년 17%에서 2024년 30%로 확대되었음.²⁹⁾
- 구라자트주에 국제금융서비스센터 GIFT City(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가 조성되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³⁰⁾
- 2024년 J.P. Morgan 신흥국 국채 지수에 인도 국채가 편입되었음.³¹⁾

■ [협력 현황] 한국 금융기관은 기존의 기업금융을 넘어 인도의 고성장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이 인도에 진출해 기업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매금융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에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함.
- 핀테크 스타트업 어피닛은 약 1억 2,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함.³²⁾
- 2024년 한국투자공사는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투자 대상을 검토하고 있음.³³⁾

■ [회담 기간 성과] 양국 간 금융 협력의 범위가 금융 감독, 역외 금융, 디지털 결제, 핀테크 등으로 확대됨.³⁴⁾

- 한국 금융위원장은 인도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교류 활성화와 양국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인도 국가투자 인프라 펀드(NIIF: National Investment and

27) 노윤재, 김경훈, 김민희, 남유진, 박지원(20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24-24; Ministry of Finance(2026), "Government Strengthens Financial Inclusion Ecosystem Through Flagship Schemes."

28) 인도의 UPI는 2025년 기준 세계 전체 디지털 실시간 결제의 약 50% 비중을 차지함. Business Line(2026), "UPI records 22.64 billion transactions in March 2026, sa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29)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25), "Economic Survey 2024/25," p. 52; NSE India, "Corporate Communications," <https://www.nseindia.com/static/resources/nse-listed-companies-market-capitalization-surpass-usd-4-trillion>.

30) GIFT City는 인도의 「외환관리법」 규제 완화에 따라 달러 기반 금융 상품 거래가 가능하며, 법인세 면제를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 <https://giftgujarat.in/>.

31) Business Standard(2024), "Govt securities to be included in JP Morgan Bond Index from June 28."

32) 조선비즈(2026), 「'인도 1.2억명 확보' 핀테크 스타트업 어피닛 이철원 대표 "IPO로 인도 공략 강화"」.

33) 한국투자공사(2024),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3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이역원 금융위원장, 적극적 금융외교로 인도·베트남과 금융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 대통령 해외순방 연계 인도·베트남 출장 금융분야 성과」.

- Infrastructure Fund)를 통한 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도 IFSCA(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와 한-인도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협력 분야로 구체화함.
 - 인도가 글로벌 금융 거점으로 육성 중인 기프트 시티(GIFT City)와 우리 금융 중심지(서울, 부산) 간의 공식 협력 기반을 구축함.
 - 한국의 금융결제원과 인도 NPCIL(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간 양해각서를 통해 국가 간 QR 결제 연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연내 연동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인도 간 QR 결제 연동 서비스를 통해 환전 없이 국내에서 쓰던 앱으로 결제가 가능할 예정임.
 - 양국 정상은 KDB산업은행의 인도 사무소 개설에 대한 관심을 환영했으며, 모디 총리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인도 사무소 개설 검토를 요청함(공동 전략 비전 문서 22번 항).

라. 방산

- [배경] 국방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며 최근 방산 육성 및 해외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함(그림 2 참고).
 - 2020~25년 기준 인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³⁵⁾
 - 해당 기간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40%), 프랑스(28%), 이스라엘(14%), 미국(9%)임.
 - 자국산 우대 조달, 민간기업 진출 규제 완화, 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인도 내 방산 생산이 2020년대 초부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그림 3 참고).
 - 러시아 헬리콥터스, 사프란, BAE 시스템즈, 롤스로이스 등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가 현지 투자 및 합작 설립을 통해 인도 방산에 참여하고 있음.
- [협력 현황] 한국은 자주포를 인도에 공급해 왔으며 수출 품목 다변화 및 현지화를 검토 중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K9 자주포 100문 공급계약을 인도정부와 체결한 후 현지 기업 L&T와 협력해 2020년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00문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하였음.³⁶⁾
 - K9 자주포의 현지화 비율이 1차 계약 50% 수준에서 2차 계약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은 비호복합 등 여타 제품을 인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도정부가 무기 조달 과정에서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합작 확대 및 현지 투자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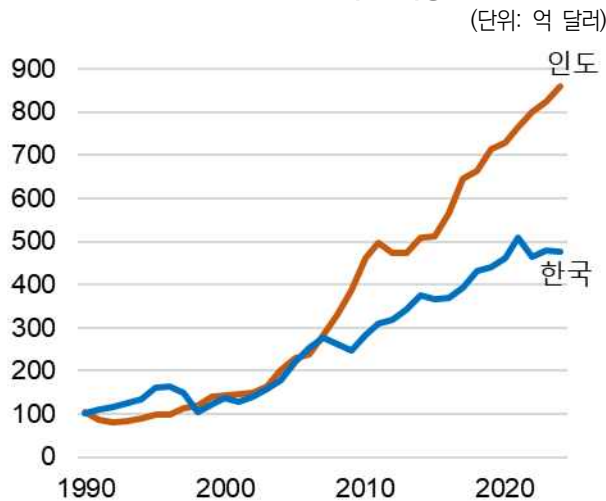
35) 우크라이나(8.4%), 사우디아라비아(7.1%), 카타르(6.2%)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도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 [회담 기간 성과] 한국정부는 인도의 방산 육성 의지를 반영한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양국 정부는 방산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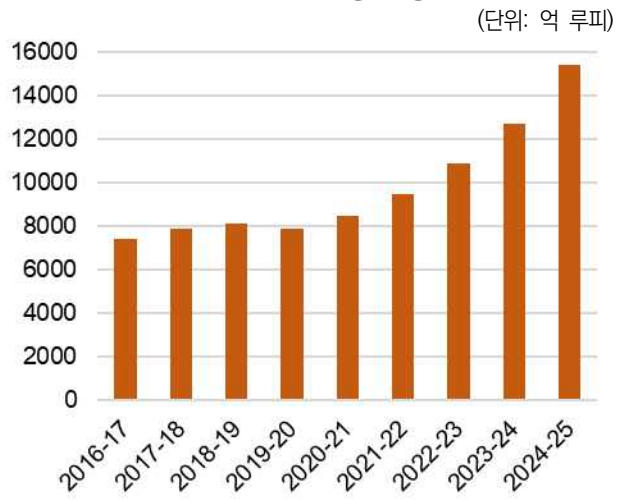
- *The Times of India*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의 방산 자립(Atmanirbhar Bharat) 기초를 지원한다고 전하며, 양국이 공동 기술 개발 및 공동 생산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공동 전략 비전에서 양국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10번 항), 2020년에 체결된 '방산협력 로드맵' 양해각서를 재활성화하기로 하고 K9 자주포와 더불어 비호복합체계를 상호 관심 분야로 특정하였으며(25번 항), 기업, 인큐베이터, 투자자, 방산 스타트업 및 대학을 연결하는 '한-인도 방산혁신가속플랫폼(KIND-X)'을 출범하기로 함(26번 항).

그림 2. 인도와 한국의 국방비



자료: SIPRI.

그림 3. 인도의 방산 생산



자료: Department of Defence Production.

마.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 [기업 진출 지원] 한국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배경] 한국의 주요 대기업은 인도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과 소재 조달은 상당 부분 한국 또는 제3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의 복잡한 규제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인도는 한국의 30배가 넘는 국토 규모에 28개의 주(state)와 8개의 연방 직할지로 구성된 국가로, 노동·세제·인허가 등 주별 사업 환경과 언어 및 문화가 상이해 높은 수준의 현지화가 요구되는 시장임.
- [협력 현황] 한국정부와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인도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동향 조사, 물류 및 인증, 사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³⁷⁾

- 중소기업기업부는 2025년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인도 중소기업공사(NSIC: National Small Industries Corporation)와 함께 제도 지원, 기술 혁신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³⁸⁾
- [회담 기간 성과] 양국은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 및 협력을 촉진하기로 함.³⁹⁾
 - 중소기업기업부는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을 논의함.
 - 벤처·스타트업 인재 교류와 창업 생태계 확장 협력 등을 위한 한-인도 벤처·스타트업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함.

■ [민생 밀착형 외교] 양국은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배경] 인도 내 한국 교민 수는 약 1만 2,000명, 진출 기업은 670여 개로 인도의 경제 및 인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가운데,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에 대비해 교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함.⁴⁰⁾
- [협력 현황] 주인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은 민생 지원, 언어 교육, 문화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⁴¹⁾
 - 2012년 설립된 주인도 한국문화원은 K-컬처 행사를 개최하고, 인도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태권도 및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인도정부가 국가교육정책에서 제2외국어 8개 언어 중 한국어를 첫 번째로 지정한 이후, 세종학당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 뉴델리(한국문화원), 첸나이, 파트나, 바라사트, 푸네, 임팔, 벵갈루루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음.⁴²⁾
 - 2026년 개원한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유학생 유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⁴³⁾
- [회담 기관 성과] 국빈 방문 기간에 동포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국민의 인도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양국은 2010년에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선협상을 가속하기로 함.

- [배경] 양국은 2016~24년 CEPA 양허율 및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협상을 총 11차례 진행하였으나, 2024년 7월 제11차 회의 이후 추가 논의가 없었음.

37)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뉴델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5M0.do>,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https://www.kotra.or.kr/newdelhi/subList/40000000090>, 코트라는 뉴델리 외에도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콜카타, 구자라트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음.

38) 중소기업기업부(2024), 「중기부, 인도 정부와 정책협력에 나서다」.

39) 중소기업기업부(2026), 「중기부, 인도와 혁신 파트너십 구축! 스타트업 및 인재 교류 본격화」.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알려」.

41) 주인도한국문화원, 「문화원 소개」, <https://india.korean-culture.org/ko/7/contents/327>.

42) 세종학당재단(2020), 「인도 학교에서도 우리말과 문화 배우게 됐다」.

43) 교육부(2026),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으로 글로벌 교육의 동반자 관계 구축」.

- [협력 현황] 2020년대 초 이후 인도와 주요 교역 대상국의 신규 FTA에서 양허율이 높아지고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로 한-인도 CEPA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인도가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상대국 대부분의 양허율이 인도보다 높아 100%(수입액 기준)에 가까움.
 - 2025년 체결한 인도-영국 FTA에는 다양한 신통상 분야가 다뤄지며 한-인도 CEPA의 두 배 수준인 30개의 장(chapter)이 포함됨.
- [회담 기간 성과] 양측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녹색 경제 등 신통상 분야로 협상을 확대할 계획임.

3. 시사점

- 오랜 공백 기간 이후 개최된 한-인도 공식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광범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한 가운데, 양국 관계 개선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기회 삼아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산업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전략 부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⁴⁴⁾
- [단기] 조선업, 철강 등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정상회담 기간에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 유관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상회담 기간에 발표된 주요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우리 유관기관이 기운영하고 있는 인도 내 한국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설립할 한국 전담 데스크의 운영 계획 및 방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1년 차에는 정상회담 기간에 추후 개최하기로 합의한 회의 및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2년 차에는 주요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 계획을 도출하여 협력 방향성을 설정하며, 3년 차에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설할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협력 의지, 원칙, 비전, 상호 호혜적 협력 분야, 이해관계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먼저 수립한 후, 심도 있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분야별 청사진 및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음.
 -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에서는 공동개발·생산 확대 및 수출 품목 다양화를 목표로 2020년 방산협력 로드맵을 업데이트할 수 있음.
- 전략산업 협력을 추진하면서 CEPA 개선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신통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음.

44) 김경훈, 한형민, 강반디, 김민희, 남유진, 박병열(2025),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5-04.

- 지금까지 인도는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CEPA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2026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공급망 및 첨단산업 중심의 협력을 증시한 점이 인도가 개선 협상에 다시 나서기 시작한 계기로 작용한 만큼 전략산업 협력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전략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도 국영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수 있음.

- 조선업에서 우리 기업은 국영 CSL, BEML, SMFCL, NSHIP TN 등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우리 기관은 금융 협력을 위해 국영 NPCIL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양국 금융당국은 인도 국부펀드 NIIF를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함.
- 방산, 에너지, 광물, 인프라, 금융, 디지털 등 전략 및 기간산업에서 인도 국영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⁴⁶⁾

■ 조선업 등 양국의 협력 의지가 큰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및 정책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교적·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인도정부가 해양경제를 한국과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해운·해양 물류 분야 포괄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주요 부문을 포함한 개발협력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인도는 △ 조선업 및 조선업 산업단지외 더불어 △ 항만, △ 항만 연계 복합 교통 인프라, △ 해양산업 인재 양성, △ 해양연구 및 탐사, △ 수산업, △ 해양 환경 및 기후재난 부문 협력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은 해당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⁴⁷⁾
 - KOICA가 진행할 계획인 해양산업 인재 양성사업에 대해 인도가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해양경제 관련 유무상 개발협력사업을 추가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산업단지 진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공적개발원조 및 정책금융을 사용해 한국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인도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2026년 2월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대표가 참석해 ‘플러그 앤 플레이’ 산업단지 입주 및 공동개발을 제안했으며,⁴⁸⁾ 국빈 방문 기간에 관련 부처가 NICDC 산업단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산업단지 개발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유망 분야임.⁴⁹⁾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KDB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기관은 인도 전략산업 및 인프라 부

45) 박병열(2026),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15호.

46) 김경훈, 김도연, 김소은, 남유진, 백종훈(2024),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4-02.

47) 김경훈, 권율, 노윤재, 김도연, 윤지현, 강반디, 박소정, 김민희, 남유진(2025), 『종합제안형 ODA 패키지사업 기획 연구: 인도 해양경제를 중심으로(미발간 수탁 보고서)』.

48) 한국무역협회(2026),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AI·공급망 등 협력모색」.

49) 김경훈, 신민균, 김도연, 윤지현, 김소은, 지연정(2025), 『공급망 재편 시대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KIEP 연구보고서 25-14.

문에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U. 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등 개발금융기구와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ustralian Super,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등 공공금융기관은 인도의 주요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며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함.⁵⁰⁾ KIEP

50) 김경훈, 김도연, 김소은, 남유진, 백종훈(2024),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4-02.